

# 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증원 확정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 “서울 0명”...전국 32개 대학 정원 배분 완료 7개 거점국립대 정원 ‘200명’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뚜껑’을 박았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 의료 인력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2.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

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안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

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2천명 증원은 최소치” 한총리,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로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천명 정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신입생은 지역 인제 전형 등 적극 활용에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대인 전남은 지역 내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김지사, 지역 대학병원장과 의료현안 논의

###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감사 의료 R&D사업 협력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화순전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을 잇따라 방문해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감사를 표하고 병원 측의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연세 간담회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교수님들과 같이 근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대학교 병원이 추진하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1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타라인을 구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중·중등증 환자 병원 분산을 유도

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상황 악화를 대비해 3개 지방의료원의 휴일 진료 및 보건소의 진료시간 확대 조치를 취했고, 필요 시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광주 동명동 ‘지역 대표상권’으로 키운다

### 市, 1호 대표상권 선정...로컬콘텐츠 운영 등 1억1천만원 지원

광주시가 동구 동명동 상권을 ‘광주 대표 상권’으로 키운다.

동명동을 자생력 갖춘 대표상권으로 육성하고, 커피 중심의 로컬브랜드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형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상권 집중 육성사업’ 대상지로 동명동 상권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에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은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평

가를 거쳐 동명동 상권을 ‘제1호 대표 상권’으로 확정했다.

광주시에 올해 선정된 동명동에 특화 상품 개발과 로컬콘텐츠 운영 등 총 사업비 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동명동 상권은 골목 내 한옥과 주택을 개조해 개성 있는 카페, 음식점, 공방 등 주민 스스로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동명동은 상권 공동체와 동구청이 협업을 통해 해마다 사업비 5천만~1억여원을 확보, 카페거리의 특성을 살린 커피 축제를 2021년부터 열고 있다.

광주시에 동명동 카페거리를 ‘강릉

커피’처럼 광주만의 색깔과 문화를 입힌 로컬브랜드상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주변 상권 연계와 지속적인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상권 마스터플랜과 스토리 구성, 특화 상품 개발, 상권 브랜드 확산을 위한 디자인 조형물 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콜라보 프로그램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동명동이 광주시 우수 상권육성 지원사업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광주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를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